

환경보전과 시민운동

地球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당신들의 父母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子孫으로부터 信託받은 것이다.
-케냐의 격언-

1. 시민운동의 필요성

환경오염의 원인

가. 경제치중정책

- ㄱ. 관주도적 행정
- ㄴ. 경제성장위주
- ㄷ. 빈곤에서의 탈피
- ㄹ. 국민의식 소외시
- ㅁ. 인구증가(도시인구 급증)
- ㅂ. 과소비조장
- ㅅ. 생산의 대형화(EIA 결여)
- ㅇ. 천연자원 고갈

나. 오염의 심화

- ㄱ. 정부 주도
- ㄴ. 근시적 개발계획
- ㄷ. 국민의식의 배제
- ㄹ. 기술축적 무시
- 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 ㅂ. 도덕관의 경시
- ㅅ. 질서외식의 둔화

김 정 현 /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오늘날 어느 것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들의 지구 환경이 심각한 상태까지 파괴되고 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근무하는 직장 주변의 환경까지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데까지 파괴되고 있으며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위시한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물인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의 질적 악화,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 오물 및 농약등의 공공수역으로의 유입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각종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처리장 확보난등 우리의 생활, 사업활동으로 인한 각종 요인에 의해서 인류가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상이 박탈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각종 모임(NGO:비정부단체)을 만들어 자기들의 권리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위력에 대해서는 가까이에는 '92년에 조선일보가 주도한 폐기물 감소운동의 전개, 또 멀리에는 1960년대의 새마을운동 또한 농어촌의 근대화로 우리의 기반을 닦아온 것만 보더라도 시민운동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다고만 하면 우리 국민은 만사를 제쳐놓고 열심히 협력하는 마음이 아직은 살아 있다고 본다.

시민은 정의를 알고 있으며 항상 정의를 동경하고 있다. 하루속히 사회도덕이나 사회윤리가 확립되어 물질만능에서 벗어나 질서있고 명랑한 밝은 사회에서 살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한예로서 금전이나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정책과 인품에 의해서 선정된 금번 대선의 결과만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라 하겠다.

1992년 5월 25일자 환경공업신문에 의하면 국내 NGO 4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NGO와 환경처간은 상당한 불신, 불만의 불편한 관계를 가고 있는 것 같다. 응답

자의 82.3%가 정부협조,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환경오염의 책임이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 때문이 60%, 국민의 의식부족이 26.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부족이 40%, 정부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가 53.3% 즉, 정부잘못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일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작금을 돌아보면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마침내 환경처에서 오염시킨 양 뿔뿔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책임감이 있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오염방지는 법이나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기술만 가지고도 안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구조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러한 의식하에서의 협조와 올바른 보도를 통한 개선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홍보외에 또 중요한 것은 사회교육이라고 본다.

그동안 일본, 태국등 NGO회의에 수차 참석하며 느낀 외국 NGO활동을 보면 매우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3. NGO(NGO)의 역할

사태는 매우 심각하나 인류 생존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면 아마도 대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차세대에서 이러한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면 아마도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92 지구환경 summit)

우리나라의 NGO는 약 270여개가 된다고 한다. 이 중에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발족한 것이 대부분이나 전국적 차원의 NGO도 10여개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반대를 위한 NGO가 많다. 이와 같이 NGO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자고 계속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증가는 각자가 받은 각종 피해의식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NGO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가?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고

“

NGO의 증가는 각자가 받은 각종
피해의식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

할 수 있다. 국내 NGO 대표라 할 수 있는 환경보
전협회만 하더라도 정부예산지원은 거의 없었다 할
수 있으며 기타 NGO의 경우에도 정부를 비판하면
반정부적이고 제도권밖의 집단으로만 생각하기 때
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는 바라볼 수 없었다.

4. NGO의 국제적 활동

세계 인구의 증가와 인간활동의 규모확대화등을
배경으로 오늘의 환경문제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
화등 그 영향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지구규모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환
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의 권고에 의해 설립된 UNEP를 중심으로 UNCED
(U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
ment)등 여러 UN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 지구 Summit

위에서와 같이 각 UN 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국가이기주의때문에 각국이 대립하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으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NGO의 연결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92 Global Forum)

나. 일본의 NGO

일본의 NGO수는 무려 12,000여개나 된다고 한
다. 이들 NGO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연간 약 3억8
천만엔,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18억엔정도를 보조하
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National Trust, 생태계보
호마을선정에 대한 보조도 포함되어 있다.

각 NGO별로 월 1~2회씩 모임을 갖고 서로가

수집한 자료를 놓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대기오염측정운동
동경연락회에서는 동경도를 2km mesh로 구분하여
NOx(자동차배기가스) 간이측정을 25,000개소 설치
하여 측정하고 자동차의 총량규제 요청을 도지사에
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해서 물리적, 단
체적 행동이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측
정방법, 측정결과등을 놓고 환경처에서는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받
아들이고 예의검토 하겠다고 하니 우리와는 대조적
이라고 생각한다.

나. 아-태 NGOs 환경회의

1. 취 지

범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는 가운데 지난 1992년 6월 “지구환경 Summit”인
브라질의 리오테자네이로에서는 전세계의 정상들
이 모여 지구환경오염에 대해 토론 및 선결과제에
대한 의제선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한편 아시아지역에서는
이와는 상반되게 도시화와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태국과 싱가포르등을 비
롯한 신흥공업 국가들 및 저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경제, 산업환경 및 주변정세가 선진국들이 주장하
는 의견과는 매우 다르며 보다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제1회 아세아-태평양 NGOs 환
경회의”가 일본환경회의와 태국 Siam Eco Club의
공동주최로 1991년 12월 7~8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의 환경 문제 연구가를 위시한 비정부조직(Non
Government Organization, NGO)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우선적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지역진출에 따
른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서 서로 연대해 나가자는 선언을 하였으며 또한 이
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
최하자는 제의에 따라 이번 제2회 아시아-태평양

NGOs 환경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환경회의의 개최목적은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아시아 NGO가 나가야 할 과제와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협조 및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국가경제 부흥을 위한 긴밀한 협조 및 지구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아세아 환경문제에 관한 선언문

(1991. 12. 8 방콕)

Siam Environment Club과 일본환경회의의 주최로 아시아 8개국에서 환경문제 전문가와 법률가들과 각 나라의 NGO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1. 12.7~8 이틀간 방콕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토론되었다.

-산업발달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의 피해와 산업 및 사회활동에 의한 자연의 훼손 및 무계획적인 도시화와 자동차의 발달등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질 저하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각 나라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3일 동안의 현지답사와 2일간의 토론을 거쳐 각 나라의 환경실태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한 결과, 남부아시아지역 국가에서는 일본 O.D.A와 일본국적기업 및 일본자본 다국적기업의 산업활동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아시아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한 결과, 오염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그들의 지위와 활동에 의해 기업과 개인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쌍무주의 또는 다각적인 국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UNCED가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국가는 국제협력을 통한 그들의 책임과 필

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책임과 합법의 기초하에서 일본과 일본국적의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환경 파괴의 정도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파괴된 자연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한다. 선진공업국들은 또한 그들의 통치권으로써 통제하여 환경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국제적으로 정해진 환경권에 의해 일본 O.D.A와 일본자본의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다른나라의 환경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3)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천연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채굴, 벌채하는 경우 NGO는 직면한 에너지자원 고갈을 막고 과다한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4) 생태계의 다양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나 개발도상국에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너무나 미흡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저개발국가들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환경처리기술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심각한 국가에서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하에서 기술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6) 지속적인 환경처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아지역에서도 또한 인식하고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환경기금, 환경기술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범지구적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협력기구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UNCED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7) 환경 전문가, 법률가, 행정관료와 시민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들은 일련의 회의와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정진해 나갈 것이다.